성역할 정체성, 성차별 그리고 스포츠 성평등

: 성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한 제언

임새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성역할 사회화

대한민국에서 자란 남성들은 태어나서 단 세 번 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자란 남성이라면 살면서 수없이 들었을 법한 말이다. 남성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감정에 대한 절제가 남성의 미덕인 것처럼 훈육된다. 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남성과 여성이 달라야 한다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비롯된 행위이다. 이렇게 사회적 규범 속에 내재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의 행동양식을 정형화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김소정, 2013).

성역할(gender role)이란 남성 또는 여성의 성별에 의해 기대되는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성역할은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학습된 결과로 나타나며(강경석, 박연희, 2008), 성역할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있어 다양한 사회화의 주관자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유아기 성역할 사회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부모의 관습적인 행동과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5세 정도가 되면서 자신의 성별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된다. 다시 말해, 태어났을 때부터 성별에 따른 행동양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역할에 따른 고정된 행동양식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7세 이후에는 성별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부모를 비롯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고정화되면서 성역할 선호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출생 초기부터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어른이 되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으며,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강혜경, 이성연, 2019).

성역할의 고정화는 학교 교육을 통해 더욱 분명

하게 나타난다(고현, 황정련, 2013).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가치관은 학교 교육을 통해 재생산 되며, 그들의 또래 문화는 고정화된 성역할을 당연한 문화적 규범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피구, 발야구와 같이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별도로 존재하며, 격렬하고 활동성이 높은 스포츠 종목은 남학생들의 전유물로 취급된다(박남환, 2004; 최임숙, 2004).

미디어도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미디어가 성역할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미디어는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성역할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미디어들은 전통적인 관점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유지 및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며, 독자 혹은 시청자로 하여금 고정된 성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일조한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디어는 전 생애에 걸쳐 성역할에 대한 고정된 편견을 확산하는 중요한 매개로 자리잡고 있다(김미선, 이가영, 2016).

이처럼 대중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전복시키는 일은 매우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은 불평등을 넘어 젠더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젠더 이슈들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스포츠계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야기되는 불평등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스포츠계의 젠더이슈

스포츠에서 젠더 불평등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숙제(Women's Sport Foundation, 2016)이다. 스포츠 내에 존재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빠르고 강한 것은 남성적인 것으로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여성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부당한 불평등 및 차별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의 대표 골잡이였던 박은선 선수의 성별 의혹이다. '다른 선수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선수는 다른 팀의 지도자들로부터 남성으로 오해를 받았고, 2013년에는 본인의 소속팀을 제외한 6개 구단의 감독들은 박선수의 성별의혹을 문제 삼으며 퇴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김철오, 2015.06.14.). 박선수는 이미 지난 2003년에 부당한 성별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으며, 성별 검사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들의 감독들은 성별을 문제 삼으며, 미디어를 통해 박선수에 대한 성차별적인 주장을 지속하였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야기한 심각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수차례 성별 논란에 휩싸인 박선수는 이후 팀 이탈과 복귀를 반복하며, 여러 차례 방황을 경험하였다.

여성선수들의 외모평가 및 비하로 인한 성차별은 올림픽 중계방송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실시 한 결과 성차별과 관련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30건이나 나오기도 했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8). 조사된 발언 내용은 주로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거나 여성성 혹은 남성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선수에 대한 외모 평가 등이었다. 이밖에도 도쿄 올림픽이 한창이던 2021년 7월에도 젠더와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양궁 국가대표인 안산 선수의 개인 SNS에 누군가가 '왜 머리를 짧게 했나요?'라고 물었고 안선수는 '그게 편하니까요'라는 답변하였다. 단순히 보면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어 보이는 안산 선수의 SNS 내용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과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편견이 결부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회자되었다(장지명, 2022).

한편, 해외에서는 여성선수들을 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하는 젠더 이슈에 정면으로 맞대응한 사례도 있었다. 보통 기계체조 선수들은 원피스 수영복 모양인 레오타드를 입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독일 여자 체조 대표팀은 몸통에서부터 발목 끝까지 가리는 유니타드(uni와 leotard의 합성어·단일 발레 연습복)를 입고 등장했다. 독일팀은 이번 대회에서 레오타드 의상을 입지 않은 유일한 팀이었다. 복장을 통해 나타나는 성적대상화에 대응하는 독일 기계체조 선수들의 모습은 올림픽에 있어서도 성차별이 잔존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올림픽 나아가서는 전 스포츠 분야에서 나타는 성차별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었다.

〈그림 1〉 독일 기계체조 팀의 유니타드 의상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3297#home

스포츠계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은 고대 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올림픽에서 여성의 스포츠 관람과 참여는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도 역시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근대 올림픽 직후에도 여성들에게 올림픽 참가의 벽은 높았고, 올림픽은 한동안 남성들이 지배적 권력을 행사하는 영역으로 분류되었다(송형석, 2006).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스포츠 내 성평등 실현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IOC는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소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 하나가 스포츠"라고 주장하고 있다. IOC가 스포츠 내 성평등을 주장하며 내놓은 'IOC 성평등 리포트(Gender Equality and Inclusion Report)'는 5개 분야의 25개의 권고안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선언적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해당 권고가 실천되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 개최된 2020 도쿄 올림픽은 핵심가치 중 하나로 성평등 실현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지난 2012 런던올림픽에서는 성소수자 출전선수가 23명에 불과했지만, 2020 도쿄 올림픽

〈표 1〉 운동부, 클럽, 동호회 성비 비교

구분	2019			2020			2021		
	남성(명)	여성(명)	남성대비 여성비율(%)	남성(명)	여성(명)	남성대비 여성비율(%)	남성(명)	여성(명)	남성대비 여성비율(%)
운동부	12,593	2,967	23.5	13,090	3,116	23.8	17,964	3,992	22.2
클럽	2,317	398	17.1	3,848	539	14.0	2,048	357	17.4
동호회	1,092	177	16.2	4,768	577	12.1	4,001	173	4.32

ⓒ 대한체육회 지도자 현황

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퀴어(이하 LGBTQ), 논바이너리(Nonbinary, 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별로 이분법적 성별에 속하지 않음)를 비롯한 성소수자 출전 선수가 최소 183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남녀 공동 기수, 성별 구분 없는 종목의 증가, 50:50의 남녀 출전 선수 비율 등은 IOC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실현의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올림픽에서 LGBTQ선수, Nonbinary 선수들의 참여조건 및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IOC의 성평등 실천 노력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의 스포츠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과 관련된 지수를 살펴보면, 정규직 비율(남성 65.8%, 여성 34.2%), 여성 정규직 임금비율(남성의 77%수준), 체육분야 공공기관 4급이상 고위직 비율(남성 90.1%, 여성 9.9%)에서 모두 남성들이 비율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국내의 여성정책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2000년 〈남녀차별금지법〉, 2001년 여성부 신설, 2005년 호주제 폐지, 2012년 〈성별영향력분석법〉과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고, 권리, 책임,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이재경, 김경희, 2012).

2014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당시 '현대 헌법에서 제3의 성을 보호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란의 우려가 있고 양성평등 개념이 다소 일반적이다'라는 반론으로 인해 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후,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도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명칭을 '성평등' 기본계획으로 명칭 변경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같은 쟁점의 논란으로 인해 명칭을 변경하지 못했다(조수선, 2019).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양성평등의 의미가 남녀라는 성적인 차이에 따른 차별을 없앤다는 기계적 평등관을 내포하고 있다면,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확장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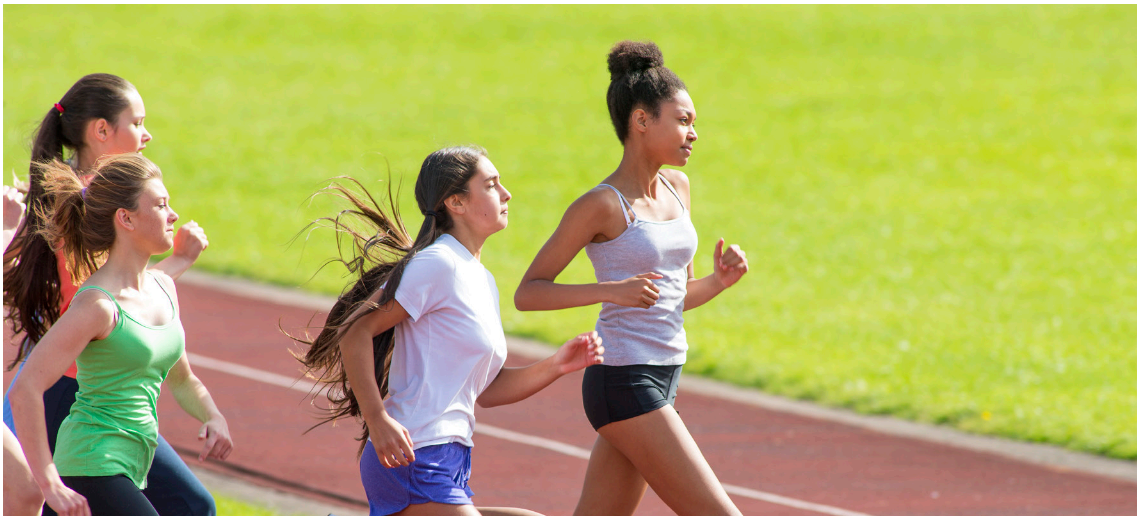
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성평등의 대상에 성소수자와 제 3의 성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양성이 아닌 성이라는 용어는 남녀 이외의 성을 포함하므로 현실적으로 관련 정책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의 개념이 우선적으로 채택될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제3의 성 표기를 허용하고 있고, 여권 성별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정부는 더 나아가서 논바이너리도 선택할 수 있는 성별 중 하나로 하는 제도를 도입 추진 중이다.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의 범위만으로 부족하며, 보다 넓은 개념의 성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적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계적으로 성평등의 개념이 확장되고, 다양한 성 정체성이 존중받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스포츠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IOC가 2020 도쿄 올림픽의 핵심가치로 성평등 실현을 앞세운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 실현은 그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들에게 포용력을 갖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귀결될 수 있으며, 사회 구조적으로 은폐되고 고착화된 스포츠 분야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한국 스포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차별과 불평등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비롯되고 스포츠계가 갖고 있는 문화와 환경으로 인해 고착화 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다행히도 미투(Me too)사건을 비롯하여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계에서도 성평등과 관련된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후의 성평등 관련된 스포츠 환경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 gettyimageskorea

있는 몇 가지를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이분법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정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다. 이에 스포츠 단체들은 성평등 정도을 평가 할 수 있는 정례적인 보고서를 발간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평등 정책수립 및 이행관리를 위해서는 성을 기반으로 한 배척과 차별에 관련한 문화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성평등 평가지표 개발,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기초작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평등정책은 체육계 내부의 다양한 분야에 성평등 가치를 녹여내야 하는 것으로 각 부서별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스포츠 정책구현을 위해서는 한국도 영국, 또는 핀란드의 사례처럼 스포츠 분야의 성평등 증진정책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단순한 정책제안이 아닌 보다 발전된 형태로 성평등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 집행 체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젠더 거버넌스 정착이 필수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스포츠계에 속한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전국민적인 관심을 통해 작은 문제들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그 노력이 출발선이 되어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강경석, 박연희. (2008).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1), 41-54.

강혜경, 어성연. (2019). 성인기 초기 남성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성 인지와 커밍아웃 경험. 가정과 삶의질연구, 37(3), 37-54.

김미선, 이가영. (2016). 미디어 재현에 나타난 남성성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정치학:〈 삼시세끼: 어촌편〉 서사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1(3), 97-137.

김소정. (2013).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기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1), 89-111.

김철오(2015.06.14.). 윤덕여호의 비밀병기 박은선... 축구인생은 굴곡 그 자체.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543283&code=61161311&cp=nv. 2022년 4월 25일 검색.

대한체육회(2022). 지도자 종별 현황.

박남환(2004). 체육교육을 통한 성 역할 강화의 제 현상. 한국체육과학회지, 13(2), 517-530.

송형석(2006). 스포츠에 나타난 근대성: 알렌 굿맨(AllenGuttmann)의 근대 스포츠론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47, 391-410.

양성평등진흥원(2018). (보도자료) 성평등 올림픽 발목 잡는 성차별 중계방송.

이재경, 김경희(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28(3), 1-33.

장지명(2021). 양궁 안산 선수 관련 젠더 갈등 논란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경향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60(6), 335-348.

조수선(2019). 국내 언론의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 사용 분석: 언론사, 기자의 성, 기사 종류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54), 5-49.

최임숙(2004).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213-232.

Women’s Sport Foundation(2016). https://www.womenssportsfoundation.org/research/articles-and-reports/equity-issues/. 2022년 4월 23일 검색. 성역할 사회화